

독서는 경계를 넘는 일

오늘 나를 달래느라 참 힘들었다. 내 마음 속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때로는 어른스럽다가도 한 번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면 달래기가 힘들다. 아무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누가 밥 먹자고 전화가 와도 바쁘다고 내치고 글을 쓰지도 않고 불안하게 거닐기를 수 없이 한다. 근래에 일어났던 괴로운 일들, 조금 더 잘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 누군가에게 이해 받고 싶은 마음,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물밀듯이 밀려온다. 때로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다. 그럴 때는 책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클 변학수

독자인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는가. 그럴 때는 가만히 자리에 앉아 명상을 해보자. 벤치도 좋고 방도 좋다. 그리고는 가장 행복했던 때를 떠올려 보자. 가슴이 싱싱하게 펌프질을 해대던 시간을 생각해 보자. 열정이 끓어올라 잠을 자지 않아도 마음이 별빛으로 환하던 시간을 그려 보자. 현실의 공간과 상상의 공간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림들이 눈에 떠오를 것이다. 마치 화가 달리의 그림들처럼 새로운 계시가 들리고 다른 차원의 기적들이 보일 것이다.

심리적 외상이 심한 사람은 독서가 좋아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책을 손에 잡을 수 있다. 마음이 불안하거나 산란하거나 분노가 치밀어오를 때 적극적인 문학치료의 방식인 글쓰기, 연행하기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오히려 상처가 더 깊어질 수 있다. 특히 심리적 외상이 심한 사람은 적극적인 방식보다 독서 같은 수용적 방식이 좋다. 그림을 관찰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는 것은 그

런 외상을 건드리지 않고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길이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의 영혼, 정서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헤량할 수 없는 영혼의 모습을 하나의 형상(계슈탈트)으로 만들어 대화를 할 수 있다. 가령 우리는 셰익스피어 고전 중의 하나인 《베니스의 상인》에서 샤일록의 악독함, 포샤의 기지, 밤사니오의 사랑과 같은 형상을 만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생각을 버리고 경계를 넘어보자. 다소 엉뚱한 일일지 모르지만 유대인 샤일록의 편에서 생각해 보자. 그가 너무나 불쌍하지 않는가. 그가 속한 사회인 유대인에 대한 동정심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그들에게 침을 뱉고, 머리에 붉은 모자를 씌워 격리하고, 아무런 부동산도 가지지 못할 정도로 엄격한 법을 만들었다는 것 이외에도 창녀보다 못한 신분을 가진 이들이 곧 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진 사람만이 요구할 수 있는 '자비'에 맞서서 가지지 못한 사람이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정의'가 아

니던가. 우리는 책을 읽는 잠시만이라도 이렇게 도덕이라는 경계를 넘을 때 (또는 넘고 싶지 않으면 물러서면 된다) 비로소 자신을 위로받을 수 있다. 책을 읽는 것은 무엇에 사로잡히는 것이다.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대부분 법과 질서가 아니라 내면의 욕구나 소원, 욕망이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경계 너머, 책 읽는 상상공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다. 불명예도 아니다. 그보다는 뻔한 일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하여 행복은 후각처럼 빨리 마비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늘 일상을 바꿀 수도 없다. 직장을 자주 옮길 수도 없고, 결혼을 자주 할 수도 없으며, 대학을 자주 바꿀 수도 없고 친구를 바꾸기는 더욱 힘들다. 사랑의 처음에 설레던 마음도, 감사했던 친구에 대한 은공도,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안도감도 일이 끝나면 쉬 마비되고 만다. 그리고는 원래 이런 상태로 살았던 것처럼 생각한다. 원래 아무 걱정도 없이 살았던 것처럼,

항상 건강하게 살았던 것처럼.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은 커녕 책 속에서 경계 넘기도 힘들다.

그러니 오늘 다시 생각해보자. 그동안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읽고 엄석대처럼 되지 말고 한병태처럼 살아야겠다, 라고만 읽었다면 상상공간에서는 엄석대처럼 살아보는 것도 괜찮은 일이다. 어쩌면 내가 이미 자녀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써보라. 나와 엄석대의 공통점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나는 확신한다. 나야말로 엄석대의 도플갱어라고.

《향수》의 그르누이를 생각해보자. 그는 냄새를 빼앗기고 노예처럼 살아가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유일하게 냄새 맡는 일 뿐. 나와 그르누이의 공통점을 써보자.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삶에는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의 베로니카처럼 자살을 해보자. 마음으로 과감하게. 그렇게 상상해보고 유서를 써보자.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그래서 더 견딜 수 없다”는 베로니카의 속모처럼. 아주 역설적이지만 베로니카가 입원한 정신병원장이 베로니카를 대상으로 쓴 논문은 ‘죽음에 대한 자각은 우리를 더 치열하게 살도록 자극한다’ 였다.

아마 유비추리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독자는 이런 일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에게는 적어도 독서의 보호자가 필요하다. 경계를 넘을 수 있도록 동행해주어야 한다. 문학치료를 할 때도 이런 기법을 많이 활용한다. 그리고 차근차근히 그에게 쉬운 작품부터 읽

게 해야 한다. 미하엘 엔데의 《마법의 설탕 두 조각》을 읽어보자. 엄마 아빠가 너무나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요정을 찾아간 령켄은 설탕 두 조각을 얻는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마다 찻잔 속에 타서 키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한다는 이야기다. 령켄이 도덕적 경계를 넘어감으로써 비로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느낌을 갖게 된다. 버닝햄의 《지각대장 존》이라는 그림책을 읽어주라. 존 버닝햄이 다섯 살짜리의 생각으로 썼다고 하는 책.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경계너머. 매일처럼 지각할 때마다 달달 부는 성생님을 처벌하는 것은 얼마나 유쾌한 일인가.

행복을 재생산하지 말고

오늘은 책을 펴보세요

오늘 새로 생각해보자. 내가 날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행복을 재생산하려고 하지 않는지. 저녁이면 텔레비전 켜놓고 이승엽의 홈런소식이나 기다리고, 박지성이 다치면 걱정스럽고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 말고도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걱정해주는 애국자들(?)은 많다. 그러지 말고 오늘은 책을 펴자. 그리고 경계를 넘어 다른 사람이 되어 보자. 그래야 건강하게 밥을 먹고 지내고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돈이

없다는 것은 곧 열심히 일하라는 뜻이므로 행복하지 않은가. 피곤한 것은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이고, 잠이 오지 않는 것은 내가 베로니카의 속모처럼 행복하지고 불행하지도 않는 편안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독서는 경계 넘기를 하는 사람에게만 그 의미를 전해준다.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에 둘러싸인 사일룩이나 그르누이를 보면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알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과는 달리 문학에서 싫으면 언제든지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다. **출판**

변환수님은 경북대학교 독어교육학과와 대학원 문학치료학과 교수이다. 저서로 《통합적 문학치료》 《문화로 읽는 영화의 즐거움》 《낯선 문학의 해석학적 미학적 경험》 등이 있다.

